



국가 지정 특별 사적·중요 문화재

코도칸 道館

주변 산책 지도

코도칸 산책 경로
약 1.5km · 약 1시간



미토시
수도 저지대 배수탑
(1932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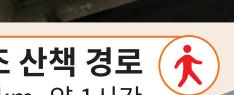
도부칸



이바라기현
산노마루 청사
(구 현 청사)
(1930년 설치)

가라보리·도루이

미토조 산책 경로
약 1.7km · 약 1시간



카이라쿠엔 방문해 보세요

JR 조반선 미토역 북쪽 출입구에서 버스로 약 15분
4번 승강장: 카이라쿠엔행→'카이라쿠엔·도키와 신사 앞' 하차
사쿠라가와사코 방면 →'역사관 카이라쿠엔 입구' 하차
6번 승강장: 카이라쿠엔행→'카이라쿠엔' 하차



최신 정보는 여기에서



코도칸

카이라쿠엔

이바라기의 공원

코도칸 사무소

주소 일본 이바라기현 미토시 산노마루 1-6-29
전화: 029-231-4725

〒 310-0011

시설 내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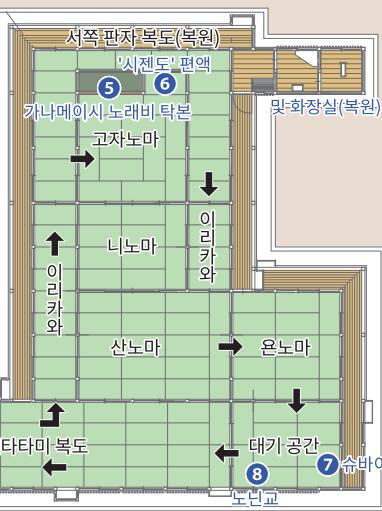
【세이초 세이세끼노마】

번주가 참석해 시험이나 여러 의식을 진행했다.



【쥬켄타타미 복도】

세이초와 시젠토를 잇는 복도. 번주를 경호하는 가신들의 대기 공간



【시젠토 고자노마】

번주의 고자쇼(휴식하는 곳). 제15대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메이지 원년(1868)에 공순 근신(예를 다하고 근신한다는 뜻)한 방.

【시젠토 니노마·산노마】

번주의 여려 귀공자(어린이)가 공부하던 장소. 요시노부(어린 시절 이름: 시치로 마로)도 이곳에서 배웠다.

다이시조

【다이시조】

둑으로 둘러싸인 내부에서 무술 시험을 진행했다.
다른 번사와의 경기를 진행할 때도 있었다.

【세이초 니노마·산노마】
【세이초 쇼야쿠카이소】

중신들이 참석해 시험이나 여러 의식을 진행했다. 세이세끼노마·니노마를 합쳐 강당으로도 이용했다.

【이리카와】

다다미방과 뒷마루 사이의 다다미를 깐 복도. 다이묘나 상급 무사의 자택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세이초 정문】

넓은 시키다이(정문의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시키다이의 문에는 메이지 원년 코도칸 전쟁 때의 탄일 자국이 남아 있다.



정원 산책로 입구

건물의 면적 811m²

*복원한 부분(고쿠로쓰메소·욕실·화장실) 포함

다다미 수 302.5장,
덧문 약 2,000개

코도칸 요금소



코도칸에 담은 나리아키의 생각을 되짚다

코도칸을 설립한 도쿠가와 나리아키는 번주로 취임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생각과 방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왔습니다. 코도칸 내에는 이러한 나리아키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건축과 함께 나리아키가 남긴 생각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코도칸' 편액

나리아키가 작성했다. 뒤에 '덴포 12년 중동 작성'이라고 쓰여 있다. 중동은 음력 11월을 뜻한다.

②대자 '존왕'

나리아키의 명으로 의관 마쓰노베 사다오(호는 네)가 작성했다. 존왕이란 존왕양이의 줄임말로, 그 이름은 막부 말기 일본의 슬로건이 되어 갔다. 1998년부터 현재의 장소에 전시하고 있다.

③'유어예' 편액

나리아키가 작성했다. '유어예(游於藝)'란『논어』의 한 구절'子曰志於道據於德依於仁游於藝'(공자께서 말씀하시되 도에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 노닌다)에서 따온 것이다. '예에 노닌다'의 예는 6가지 기예인 예(예의법질), 악(음악), 사(궁술), 어(마술), 서(서자), 수(산수)를 가리킨다. 문무에 집착하지 않고 유유히 예를 통달한다는 뜻이다.



④코도칸기 비석 탁본

나리아키가 짓고 작성했다. '코도칸기'는 코도칸의 건설 정신과 교육 방침을 기록한 것으로 덴포 9년(1838)에 나리아키의 이름으로 공표했다. 후지타 도코가 명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으며, 학자들의 의견을 넣으면서 한 글자, 한 구절에 심혈을 기울여 완성했다. 비석은 코도칸 공원 내 핫케도에 보관되어 있다.

⑤가나메이시 노래비 탁본

나리아키가 짓고 작성했다. '行末毛富美奈太賀幣曾蜻島大和乃道存要那里家流'(일본의 전통적인 도는 변하지 않는 중요한 진리임을 알고, 장래에도 길을 잘못 들지 말라)라고 읽으며, 일본인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나와 있다. 비석은 공자묘 남쪽에 세워져 있다.

⑥'시젠토' 편액

나리아키가 작성했다. '시젠토'란『대학』의 한 구절 '대학지도 재명명덕 재친민 재지어자선'大学之道在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대학의 도는 명덕을 분명히 하는 것에 있으며, 백성에게 사랑받는 것에 있으며, 지선(더할 나위 없이 착한 것)에 머무르는 것에 있다)에서 따온 것이다. '지선에 머무르다'란 완전무결한 선을 근거로 하여 행한다는 뜻이다.



⑦슈바이키 비석 탁본

나리아키가 짓고 작성했다. 나리아키가 코도칸이나 카이라쿠엔에 매화나무를 심게 한 취지가 적혀 있다. 비석은 핫케도 남쪽에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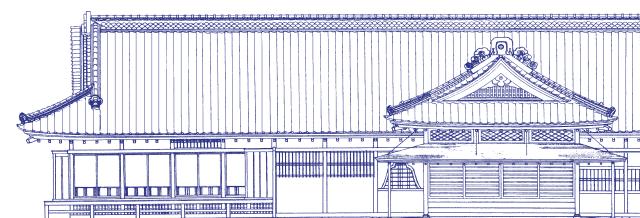
⑧노닌교

나리아키가 스스로 주조해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인형을 모티브로 하여 확대해 조각한 것이다. 원래 노닌교는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크기로, 나리아키는 식사할 때 밥상의 모퉁이에 두고 식전에 밥을 올리며 농민에게 감사했다고 한다.



⑨학생 경종

나리아키가 작성하고 만들었다. 바깥쪽에 '物學布人乃為仁登佐也加爾毛曉告流鐘能古慧鑑'(배우는 사람을 위해 청명하게도 새벽을 맞이하는 종소리여)라는 와카(일본 시)가, 안쪽에 종을 주조한 유래가 쓰여 있다. 상부 천장 근처에 바깥쪽의 안쪽의 탁본이 게시되어 있다. 종각은 공자묘 북쪽에 있다.



코도칸 건축에 관하여

코도칸은 미토번 제9대 번주인 도쿠가와 나리아키(1800~1860)가 설립한 번교(번사의 자체를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덴포10년(1839) 미토조 내산노마루의 땅에 부지가 정해졌으며, 이듬해부터 건설공사가 시작되어 덴포12년(1841)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세이초는 학교 저택이라고도 하며 번주가 참석해 문무 시험을 진행한 곳이었고, 시젠토는 번주의 고자쇼(휴식하는 곳)이었습니다. 각각 마루와 선반이 갖추어져 있고 모서리를 다듬은 사각 기둥과 중인방을 둘러 배치한 쇼인즈쿠리(서원 건축 양식)이며, 두 곳은 쥬켄타타미 복도(다다미가 깔린 긴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이초에는 쓰케쇼인(창이 돌출된 서재)도 있습니다.

지붕은 세이초의 정문 사방이 이리모야즈쿠리(팔작 지붕)로 되어 있고 세이초의 뒤편과 시젠토는 요세부네즈쿠리

(우진각 지붕)로 되어 있으며, 모두 산가와라부키(파도 모양 기와)와 와치가이가와라(교차 문양 기와)가 포함되었고 오오무네(지붕 꼭대기 부분이 수평으로 된 용마루)가 큰 것이 지방색을 드러냅니다. 또한 정문의 체마 밑에는 고계라부키(목재 지붕)의 밑 지붕이 달린 것이 특징입니다. 밑 지붕은 독립 기둥이 지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철물이 위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에도시대 말기에는 각지에 번교가 지어졌습니다만, 현존하는 잔존 건축물 중에서는 코도칸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코도칸의 건축은 쇼인즈쿠리 건축의 정통을 잇고 있습니다. 크고 간소한 표현 기법에는 드물게 정취가 있으며 넓은 범(藩)의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 『이바라기의 문화재 제39집』]